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선교의 시대가 열린다

사도행전 13: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앞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앞장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직분보다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12년이란 세월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나가기까지는 12년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원래 선교란 뜻은 라틴어로 '미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보낸 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듯이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주체는 성령이 되십니다.

1. 세계선교의 호시, 안디옥교회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호시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먼저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어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안디옥교회는 핍박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세워졌습니다.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스테반의 핍박으로 환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도망친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편안히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둘째, 안디옥교회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뜻하며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위로의 아들이란 뜻)는 구제정신에 특별한 사람이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옆에서 대신 지신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온 지도자였고, 마나엔은 임금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임에 분명합니다. 또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된 그 사울이었습니다.

셋째, 일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역, 족속, 계급, 배경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오히려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정립이 되니까 본토출신과 섬사람, 유대인과 헬라인, 귀족출신과 천민, 선지자와 교사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넷째, 갈망과 열심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는 예배를 뜻합니다. 금식할 정도로 특별한 '열심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섯째, 계시, 즉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4)'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계시하시고 보내시고 있습니다.

2. 선교의 주인은 성령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보다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할 때 이론이 있을 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다음에 할시다"라고 하는 '예의파'와 "우리 재정이 없어서 목사님 한 분도 모시기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하는 '실리파', 그리고 "이렇게 저러니까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리파'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따로 세워놓고 보낼 때 모든 교회가 아멘하고 보냈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따로 세우라 하시고, 보내시고, 모든 사역을 주도하십

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결심케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을 때 안디옥교회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질 않았습니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또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선교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 지원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이루심

이들이 먼저 전도한 곳은 구브로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전도할 때 바보라 하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그의 청함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자가 방해했었는데 바로 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 그 방해꾼의 눈을 멀게 하여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11)"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할 때 인간으로선 별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 갑자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9)"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의 이름입니다. 즉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던 사울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하며 바나바가 사울보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13절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하며 바울의 이름만 나오고 바나바는 슬쩍 빠집니다. 43절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앞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앞장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직분보다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12년이란 세월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나가기까지는 1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교회가 보낸 선교사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서울교회 홈커밍데이-11월27일(토) 오후 5시 본당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13년 전에 서울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날 이후 믿음으로 동참하였다가 지금은 각자의 사정으로 서울교회를 떠난 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보고싶은 얼굴 중 하나다.

사명자 대회 기간 중 보고싶은 얼굴들을 초청하여 교제 하며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오는 11월 27일 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될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에는 은혜로운 순서들로 짜여 있는바 서울교회가 자랑하는 대청부 찬양팀의 찬양에 이

어 이종윤 담임목사의 메시지가 있는 예배, 그리고 서울교회를 그리워했던 이들을 위한 서울교회 영상물 상영, 내가 서울교회 교인이 된 간증, 독창, 당회원 중창, 오르간과 실내악 협연, 험시바 중창단의 노래, 바이올린 연주,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맡은 대담 프로에 이어 만찬이 준비되어있다.

이를 위하여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가 구성되었고 오늘부터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유인물이 주보에 첨부되어 신청을 받게 된다.

2004년 하반기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15일(금) 오후 7시 101호

2004년에 교사로 임명받은 이들이 받은 소명대로 더욱 충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기도회를 갖는 2004년 하반기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오늘 10월15일(금) 저녁 7시30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로는 최기준 목사(전 총회교육부 총무)가 강

사로 서게 되며 '교육목회'를 주제로 강연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교육1국부터 5국에 이르는 모든 교육부서 교사들이 개인의 일을 잠시 접고 반드시 참석하여 맡기신 생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2004 성경암송 대회 임박하다

10월24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29일(금) 본선

2004 성경암송 대회가 임박하였다. 금년 성경암송대회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로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미 한 교회학교에서는 별도로 본문을 A4용지에 읽기 쉽도록 크게 인쇄하여 가는 등 참여 열기가 일고

있다. 날씨가 시원해진 가을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화요정오음악회 가을시즌 시작

10월12일(화) 정오 본당에서

제2회 화요정오음악회가 10월12일 화요일 정오 본당에서 열린다. 화요정오음악회 가을시즌은 오르간과 함께 하는 실내악 연주회로 준비되며 11월 16일(화)까지 계속된다.

첫 순서인 10월12일에는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

회로 성필관 선생(오보에)과 오자경 선생(오르간, 2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협연이 있다.

아름다운 화음의 잔치를 통해 음악 감상과 함께 전도의 기회로도 활용하도록 기도한다. 관람석은 본당 3층을 사용케 된다.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오자경

- 한양대 음대 기악과 졸업
- 미국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석사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
- 한국교회전음악협회 회장 및 한국오르가니스트 교류협회교육이사



· 현 한국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교수 및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성필관

- 한양대 음대 기악과 졸업
- 로테르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연임
- 미국, 유럽, 러시아, 아시아 등 순회공연 및 영국 독주회 개최



· 한국페스티벌대상불, 서울목관오중주단, 채리티앙상블, 바흐 앙상블단원
· 현 art for life 관장

산상수훈 山上垂訓

Sermon on the Mount

김운호 목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설교 중 마태복음 5~7장의 설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설교들보다 그 양과 내용이 풍성하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마5:1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산(山)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이 산(山)의 위치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갈릴리호수 북쪽, 가버나움 근처의 한 야산이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산상수훈이라고 하며, 때로 산상보훈(寶訓)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선교활동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산위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행한 설교로서, '성경 중 성경'으로 일컬어지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6:9~13).

일반적으로 이 산상수훈은 천국시민의 규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의 천국시민의 대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명한 '팔복(八福)'을 서두로 하여 사회적 의무, 구제행위, 기도, 금식(禁食), 이웃사랑 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유대인들의 옛 율법 전통과는 잘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끝으로 참된 종교적 신앙생활의 내면적 본질에 관한 가르침이 짙막한 비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기존 종교인들의 모든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 2004 성경 암송대회 범위로 산상수훈을 정하였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산상 수훈을 암송하여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구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 6:28-29)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NIV John 6:28-29)

2004 사명자 대회 시작되다

2004 사명자 대회 5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2004 사명자 대회 본부(본부장 하영수 장로)는 지난 주간에 교회1층 로비에 대형 50일 연속기도회 현황판을 만들어 성도들이 지나가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주보에는 사명자 대회 기간에 가슴에 품어 기도하고 전도할 태신자를 작성할 태신자 카드를 삽입하였다.

또한 사명자 대회 공동기도문을 카드로 만들어 성경찬송 사이에나 혹은 수첩에 넣어 항상 보면서 성도들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명자 대회본부는 사명자 대회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와 밤 10시에 하는 다니엘 기도(열열이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기도가 열납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아직 사명자대회 연속 기도표에 기도할 공간이 남아있는 만큼 더욱 부지런히 기도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2004 사명자 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2004 사명자 대회 발대식이 있다.

2004 사명자 대회 연속기도표 (10월8일 현재)

일시	요일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0/10	주일	사명자 대회 발대식																									
11	월	김광신 신용식 1-1 1-7 1-11	김광신 신용식 1-21 1-28	김광신 신용식 1-9 1-10	김광신 신용식 1-34 1-4	김광신 신용식 1-6	홍순복 1-5 1-12	1-24 1-27	1-13 1-31	윤용근 남옥진	김정희 이승래	김남욱	이은희	심상필 김숙자	장정숙 주경자	정정숙	윤숙희	윤숙희 유태서	윤숙희	윤숙희	백영자	서경애 1-29 1-37	서경애 1-14 1-15	서경애 1-17 1-33			
12	화	오정수 조정식 1-3 1-30	오정수 조정식 1-22 1-23 서경애	오정수 조정식 1-13 서경애	오정수 조정식 1-1 1-7 서경애	오정수 조정식 1-11 김영심 오종래 최홍렬 서경애	이윤희 정유선	이갑연 이동만	배은희 최인 박영자 조영자 전영자 변은영 이경화	함은희	함은희	김점숙	김점숙	강애자	임윤자	한춘홍	강애자	최정자	박재숙	박재숙	이신정 이은자 김지은 이갑연	김찬진 이지혁 송미정 서경애	윤성남 이영희 황정임				
13	수	노문환 전기섭 우지원 정옥희 김계순	노문환 전기섭 우지원 정옥희 김계순	노문환 전기섭 우지원 정옥희 김계순	노문환 전기섭 우지원 정옥희 김계순	노문환 전기섭 우지원 정옥희 김계순	김영주 이애순	김영주 이애순	오승민	이성애	수 요 1 부	이성애	김은애 정애신 이인선	유묘종 김인순	이영희 신연이	김은순	김미예 왕경희	이예선 이정연	수 요 2 부	한명순	임훈규 정경자	오영숙 김영주 서경애	오영숙 김영주				
14	목	정병무 이갑진 김규태 박미예	정병무 이갑진 최치순 백혜숙	정병무 이갑진 최치순 백혜숙	정병무 이갑진 박순복	정병무 이갑진 박순복	최은석	최은석	최은석	전배호	전배호 최난수 김인순	조정옥	왕경래 조정옥	이경희 왕경래 김인순	박이선	이은희	이영희	조선영	윤갑숙	김진달	정광영	정광영 서경애	정광영				
15	금	최종시 최학인 서중숙	최종시 최학인 서중숙	최종시 최학인 최미경	최종시 최학인 최미경	최종시 최학인 최미경	이난화	이난화	김우숙	정희순	황인숙	이학경 김경희	정봉금	최근자	채경희	최혜순	정정숙 윤숙희	정정숙 윤숙희	정정숙 윤숙희	정정숙 윤숙희	정정숙 박정인 성수영	금요기도	유기찬				
16	토	김대호 박정선 이종창	김대호 박정선 차도훈	김대호 박정선 한광마	김대호 박정선 한광마	김대호 박정선 이계홍	김진희	조영자 이미연 박광식 박현영	정은순 노명자 장양일	유율상 장양일	진경옥	진경옥	최정희	이태원	공진문	김희자	대청부 중심기도						서경애				
17	주일	태신자 명단 작성 - 잃은 양 찾기 명단 작성 주일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입술의 향기를 만민에게



하영수 장로
(사명자대회 본부장)

교회 6층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일 년 내내 목요일만 되면 모여서 수첩에 빼곡히 적혀있는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아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나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대상들은 대부분 교회 주변에 사는 아파트나 상가 등에 있는 태신자들인데 그 중에는 수십 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70인 전도대가 끊임없이 활동하며 또한 그들의 뒤

에는 쉬지 않고 기도로 후원하는 중보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고 등록하는 성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시간마다 이름이 적힌 수첩을 넘겨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모습은 참으로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하는 말은 그 중심이 더럽고 가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비록 서늘하고 미려한 말 같아도 거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 매우 사납고 저속으로 내리닫고 있는 것도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들만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전염되어 어린이들까지도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등 온 나라가 성난 사람으로 가득 찬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어도 지금이 태평성대인데

무슨 말이냐며 안일과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선지자를 비웃고 돌로 치며 죽이기까지 함으로 나라가 멸망한 쓰린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4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오염된 사납고 더러워진 입을 하나님께 드러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결함을 받고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국가와 민족의 여러 문제와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다락방 가족과 함께 나누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의 입에서 향기가 나게 하고 그 향기로움의 복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나와 이웃과 국가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 복을 누림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온 백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5:16)



참된 헌신

"여기 밥 떨어졌어! 새 밥 한 숟 빨리 가져와!" 앞치마를 두른 총각들과 소매를 걷어붙인 처녀들이 8층 식당 안쪽 주방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평소 10여명이 하던 주방 일을 두 배 넘는 인원이 매달렸지만 안 해보던 일인지라 한동안 우왕좌왕 헤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천천히 씻어서 설거지 언제 다 해? 행주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씻은 뒤에 옆에 있는 개수대로 옮겨 행구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어설픈 동작을 보다 못한

집사님들의 핀잔 소리에 젊은이들의 표정은 영락



없이 갓 입대한 신병이나 시집살이를 처음 시작한 새색시 마냥 어색했다.

청년부 젊은이들이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헌신예배를 앞두고 한 달간 식당봉사를 시작했다. '단지 예배 헌신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헌신을 실천하자'는 임원단의 제의에 청년들이 결의를 모은 것이다.

8층 식당에 청년들이 하나둘씩 나타난 것은 1부 예배를 마친 오전 10시쯤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웃옷을 벗고 앞치마를 서둘러 두르더니 알아서 눈치껏 밥과 김치, 국, 설거지, 후식, 식기공급조 등으로 나뉜 제각기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나타나신 부장 장로님도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청년들과 함께 봉사대열에 합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식당 일은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문제는 2부 예배가 마친 뒤부터였다. 점심식사를 하러 온 수백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배식대로 몰려들면서 청년들의 수다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손놀림은 점점 바빠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식판마다 밥과 국 김치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 이를 위해 음식

을 나눠 한꺼번에 몰려든 까닭에 복잡하긴 마찬가지였다. 헌신 진심을 깨는 청년들은 새삼 그동안 이 일을 묵묵히 해주신 식당 권사님들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청년부 손영희 부회장은 "매 주일 저도 식당 밥을 먹었지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권사님들 참고 많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라며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도와드려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배식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쪽에선 식사가 끝난 식판과 수저의 설거지를 해야 한다. 세척과 건조가 끝난 식기를 다시 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 명분이 넘는 식사가 끝나면서 나오는 설거지 감을 깨끗이 씻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수저는 끓는 물에 삶기까지 해야 한다. 그나마 대형 식기 세척기가 한 대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다행이었다.

여러 성도분들의 칭찬과 격려 소리를 들어가며 서둘지만 활기 넘치는 봉사가 진행되던 네 시간여.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식당봉사가 마무리됐다. 성경책을 들고 서둘러 3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청년들에게 집사님들은 칭찬 겸 바람의 말을 잊지 않는다. "청년들 너무 잘 하네. 1년 내내 하면 좋겠구먼!!!" "예? 아... 예..."

비록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청년들은 입을 모았다. 참된 헌신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마련한 이번 청년부의 식당봉사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민철<편집부>

교회 사랑의 기수들 - 샬롬 권사회 -

우리 교회 설립 당시 가장 앞에서 눈물의 기도와 땀을 흘리는 헌신을 해오시던 권사님들이 지금은 세월따라 머리가 희어진 샬롬 권사회원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분들의 교회 사랑의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시공간이 갈수록 그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것 같다.

단풍의 계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산을 찾아 떠나고 있다. 그러나 샬롬 권사회(회장 김중자 권사)는 지난 번 월례회에서 헌당일을 정해놓고 온 교회가 정성을 모으고 있는 터에 경비가 많이 드는 야외에 나가는 일을 중단하고 가벼운 우거지국으로 대신 하면서 건축현금을 바치기로 했다.

이 같은 교회사랑의 미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후배들과 자녀들이 머리를 숙였다. 회생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다.

각자의 허리띠를 동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할 때에 샬롬 권사회의 교회 사랑의 모범은 붉게 물든 단풍 보다 더욱 아름답다워 보였다.

(유테서 편집부)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순조롭게

한기총과 한국 교회 협의회 두 기관 산하 교단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위원장 이종운 목사)가 지난 8일과 오는 15일에 각각 모임을 갖었고 갖게 된다.

한기총 위원회는 4차례의 모임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고 교회 협의회 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잘못 번역된 주기도문 · 사도신경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교회단신

1.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교회 전체를 연막소독하였습니다.
2. 화요정오음악회가 금주(12일)부터 시작됩니다. 관람은 반드시 3층에서 하시고 조용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동정

- 이종운목사는 14일(목) 강로교 신학회 월례 신학발표회를 소집한다. 15일(금) 한국교회협의회 주기도문 · 사도신경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유승운 성도(아멘관련학단)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 이사: 손병석 집사 김현정 권사 가정(3교구) 서초구 우면동 대림@ T. 103-1506
정진문 성도 정유경 집사 가정(11교구) 강일본동 311-19 202호 T. 413-6314
서영세 집사(6교구)영등포구 양평동 대우미래사랑@ A-203 T. 2068-9971

■ 주간식당봉사: 피비어전도회(10월10일) 마리아 여전도회(10월17일)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해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카톨릭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4 사명자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